

방향 포인트-물에서 걷다.

B4 Church

Sunday, March 22nd, 2020

MVMT 1: 방향포인트 요약 4-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67-69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 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Jesus asked the Twelve.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come to believe and to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질문 : 열두 제자들의 반응은 대중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지 만 ...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히 시몬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 복음의 다섯 번째 "표지판"이나 "도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MVMT 2: 폭풍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 신다.

요한복음 16:16-21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17.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18.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19.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20.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21.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17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By now it was dark,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them. 18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19 When they had rowed about three or four miles, they saw Jesus approaching the boat, walking on the water; and they were frightened. 20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n't be afraid." 21 Then they were willing to take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reached the shore where they were heading.

마가복음 6:47-49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48.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49.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Later that night,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48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Shortly before dawn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49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50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Mark 6:47-49

마태복음 14:28-30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30.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28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29 "Come," he said.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30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Matthew 14v28-30

결론 : 예수님을 배에 초대하다.

이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필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치료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유일한 분, 당신의 구주 이신 예수님을 초대 하시겠습니까?